



전주대학교 신임 총장에 류두현 전 대외부총장 선임

전주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류두현 전 대외부총장이 11월 1일 취임했다. 류 총장은 총장 인사말에서 “AI·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기독교 대학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전주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기술과 신앙의 조화’를 제시했다.

류 총장은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종합기술원과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EPF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국제 연구 경험을 쌓았다.

1991년 전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교무처장, 대학원장, 대외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대학의 교육과 행정을 이끌었다.

류 총장은 이번 취임사에서 향후 대학이 중점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학생 중심 교육 ▲글로벌 연계 연구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혁신은 단순한 기

술 발전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전주대학교가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혁신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주대학교는 1964년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이후, 진리·평화·자유의 교시 아래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왔다. 류 총장은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류 총장은 또한 첨단기술과 인문사회적 통찰을 융합한 교육과정 혁신,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김소율 기자(soyul06@jj.ac.kr)

신임 교수회장단 출범, 비대위 합류

지난 10월 14일, 보궐선거를 통해 안정훈 교수회장을 중심으로 한 신임 교수회가 출범했다. 교수회는 15일 첫 임원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첫 번째 해결 과제로 글로컬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인에 맞서 학교의 자율권과 교수 사회의 자존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두 번째 과제로는 합리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건강한 교수회를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이튿날인 16일, 신임 교수회는 ‘전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합류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24일, 법인 이사장 주도의 이사회가 소집되자 비대위는 대학본부 앞 분수정원에서 ‘이사장 퇴진과 꼭두각시 총장 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보직 교수들, 교직원, 학생이 모여 학교 법인이 글로컬대학 지정 무산에 이어 소위 ‘바지 총장’을 내세워 대학 사유화를 시도한다며 강력한 저항과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법인은 24일 이사회를 통해 류두현 전 대외부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쳐장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직 교수들이 사퇴를 결정했다. 29일에는 공과대학 학장을 제외한 총 10개 단과대학 학장이 사퇴를 결의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선 학과장까지 3명의 부총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보직 교수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사

퇴 사태가 벌어졌다.

11월 3일, 류두현 신임 총장의 첫 출근일에 비대위는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비대위는 총장이 이사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에 부응하며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보직 교수들의 사퇴와 투쟁이 행정 불복종 투쟁의 일환임을 밝혔다. 총장이 예상보다 앞서 출근하면서 계획했던 출근 저지와 대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비대위는 본관 총장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저항의 뜻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임 총장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저항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은 우리대학 신임 교수회와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사회의 글로컬 사태 및 신임 총장 선임에 관한 투쟁 경과다. 현재 갈등은 11월 10일 기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소통 부재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태의 향방에 학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전주대 축구부, 전국체전 첫 금메달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대학부 결승에서 용인대학교를 2:1로 꺾고 창단 이래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3일 부산 동명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거둔 값진 승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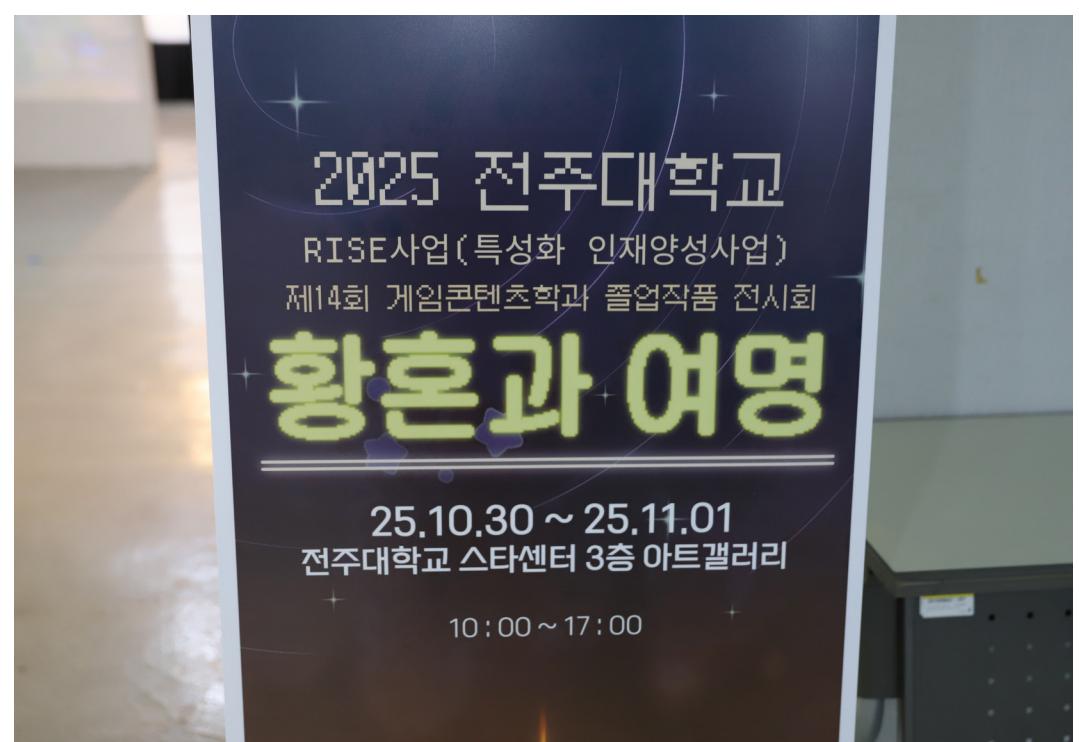
전주대 축구부는 이번 우승으로 전국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그동안의 준우승 7회와 동메달 4회의 기록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날 경기의 골문은 골키퍼 한준성이 지켰으며, 선수들은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용인대를 압박했다. 경기 초반부터 전주대는 공격적인 전개로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7분, 장현수 선수의 원발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제압을 했다. 그러나 전반 35분, 용인대의 골로 실점하며 전반전은 1:1로 마무리됐다. 후반전으로 들어서며 전주대는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중원 압박과 측면 돌파를 강화하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후반 15분, 최지웅 선수가 오른쪽면 돌파 후 올라온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여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이후 전주대는 수비라인 재정비와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용인대의 거센 추격을 막아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우리 선수단은 물을 뿌리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주대 축구부는 전국 대학 축구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며 입지를 다졌다. 앞으로도 전주대 축구부는 이번 우승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성과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 (제공: 축구부)

게임콘텐츠학과, 제14회 졸업전시회 황혼과 여명 개최



▲ 게임콘텐츠학과 졸업전시회 현장 (사진: 오수현 기자)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까지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제14회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황혼과 여명’을 주제로, 재학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역량과 창의적인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전시에는 게임콘텐츠학과 학생들이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 역량인 게임콘텐츠 개발을 기반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전시작은 팀 프로젝트 8점(ESCAPE, Ragnarok The Last Weapon, PROJECT 62, GOLDEN APPLE, 안녕히 계세요 날씨 씨, PROJECT: GIANT, Coming Death, DICE DRAGON)을 비롯해 개인 작품 4점, 디지털 아트 개인 작품 13점으로 구성됐다.

제14회 졸업준비위원장 이한수 학생은 “이번 전시회는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면서 행정절차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전시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전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방식으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키보드를 이용해 각 지점으로 이동하며 작품의 플레이 영상, 제목, 장르, 설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한수 졸업준비위원장은 “디지털 아트 작품들도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가 높아 매우 만족스러웠다”라고 덧붙였다.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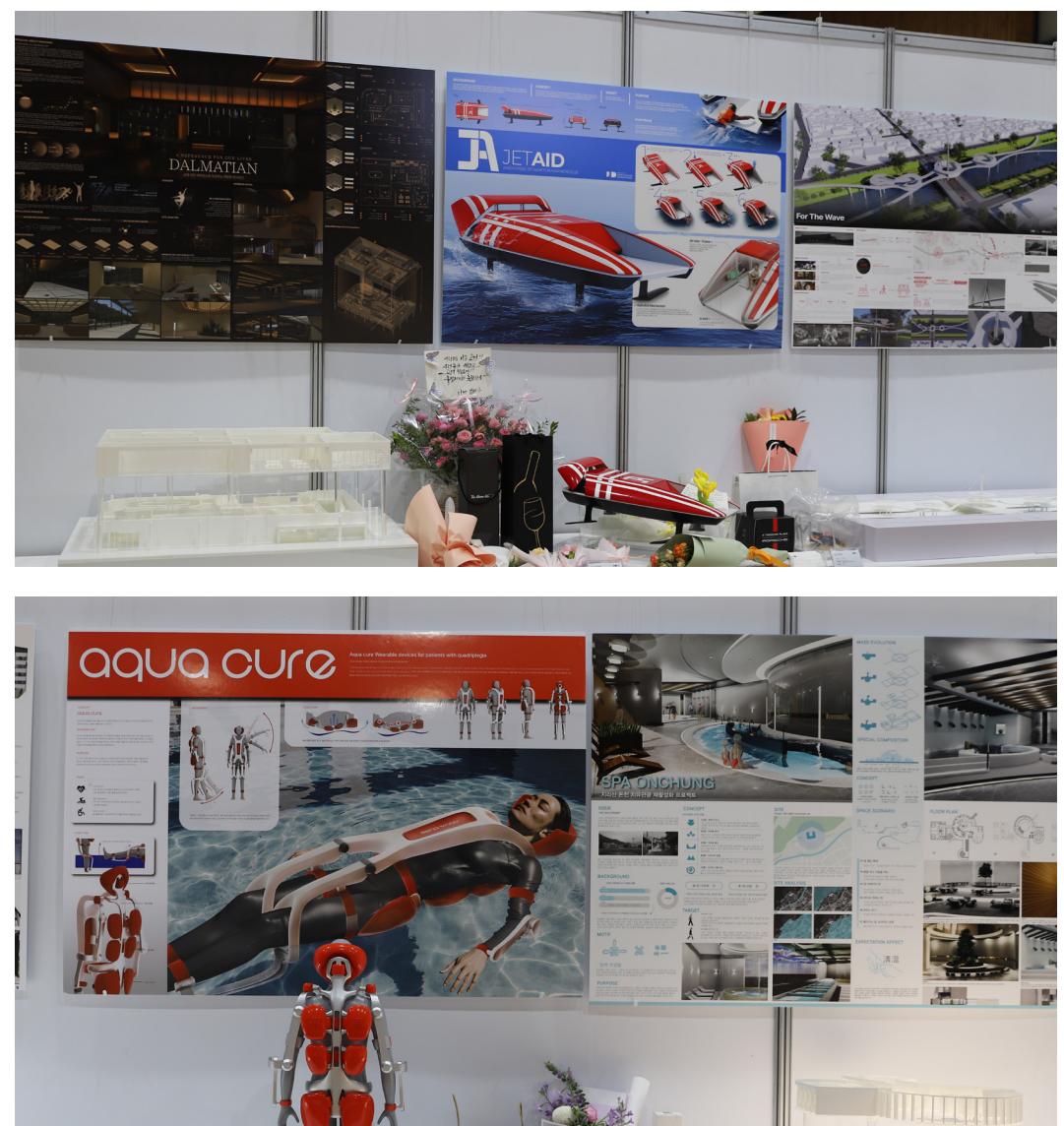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류두현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전지은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Click On the Future' 개최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림미션홀에서 제12회 졸업전시회 'Click On the Future'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졸업을 앞둔 21명 학생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다.

개회식에서 제12회 졸업준비위원장 고건 학생은 "Click'은 디자인을 향한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상징한다"라며, "학교와 작업실에서 밤낮없이 이어져 온 수많은 'Click'들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의 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4년은 꾸준한 배움과 성장을 통해 학교를 넘어 사회로 나아갈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지도교수님과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시에서는 졸업생들의 실내·문화·제품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었다.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간,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공간, 지역 문화 공간, 미래형 하이브리드 공간, 웰니스 & 힐링 공간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

로 각양각색의 작품을 선보였다. 문화 디자인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전주 지역의 특정 공간을 선정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이용객을 고려하는 새로운 문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는 의료 및 노인복지, 유기농 농업, 친환경 에너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을 제안했다.

전시를 찾은 한 관람객은 "이런 졸업전시회에 처음 방문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작품이 많아서 놀랐고, 친구의 작품을 직접 보니 성장의 흔적이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또 졸업을 앞둔 산업디자인학과 22학번 한 학생은 "제작 기간 힘들었고 수면 부족으로 지친 날도 많았지만, 모두 마치고 나니 후련하고 행복하다"라고 전시 소감을 전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남은 졸업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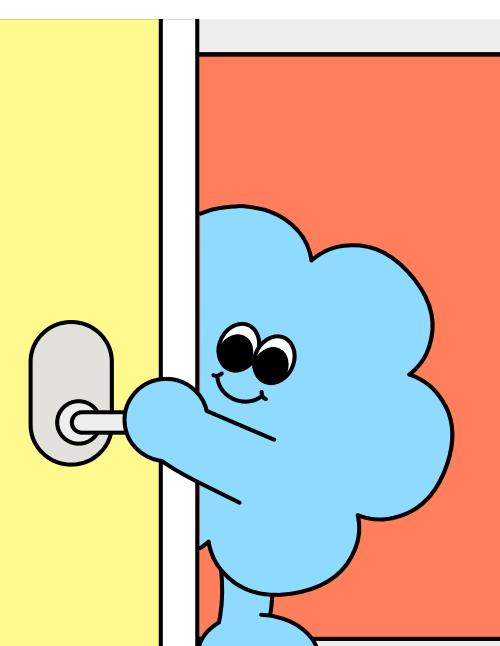
**태권도학과 제12회 졸업공연
<FINAL: The Final Show>**

12월 14일
전주대학교 예술관 JJ 아트홀

**영화방송학과 제24회 졸업영화제
<HIGH NOON>**

12월 20일
CGV전주고사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기간 고수익 보장' 대학생을 노리는 해외 취업 사기



최근 동남아 일대의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범죄 단체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이후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2년 10건 내외였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4년에는 220명,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수가 이미 330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8월, 캄보디아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떠난 한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남아 지역 취업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전부터 동남아 일대에서 취업 사기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으며,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다. 2024년 2월 1일,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우리 국민의 해당 지역 여행이 금지됐다. 같은 해 미얀마에서도 유사 범죄가 잇따르며 여행 금지령이 추가로 내려졌다.

2025년 9월 16일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가 2단계(여행 자제)로 격상됐고, 시아누크빌·보코산 지역·바벳 등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 여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어 10월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17일에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 광고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이 합동 TF팀을 구성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과 협의에 나섰다.

많은 청년이 해외 취업 사기에 연루되는 이유는 접근성 높은 온라인 취업 공고, 고수익을 내세운 문구, 취업 정보 부족등으로 파악된다. 범죄 조직은 청년층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를 모집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34세 청년층의 취업 경로로는 각각 '신문·잡지·인터넷 응모' 32%, '공개 시험' 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지인 소개' 15%, '직장 근무자 소개' 10%, '학교나 학원 추천' 6%, '특별 채용' 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온라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모집 글에서 제시하는 고수익 조건도 사기 피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정책조정실 온통청년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의 세전 평균 임금은 266만 원이다. 뉴스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향한 청년들의 사례로 미루어보았을 때 청년층 평균 임금에 4배에 달하는 고수익 문구가 캄보디아행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 정보 부족 역시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청년 대상 해외 취업 사기 게시글을 살펴보면 학력·경력·나이 등의 조건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출국을 결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해외 취업을 고려 중인 학생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취업처 송호선 진로취업지원실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네, 안녕하세요. 학생취업처 진로취업지원실 실장 송호선입니다.

Q2. 학생들이 국내·외 정확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2. 먼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모두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로부터 취업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는 전문 취업지원관이 1:1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을 비롯해,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채용 정보 제공 및 추천 채용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미취업자나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취업포털인 워크넷(Worknet), 민간 대표 플랫폼인 잡코리아(JobKorea), 사람인(Saramin), 인크루트(Incruit) 등으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또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여러 채널이 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를 가장 추천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채용 공고와 정부 인증 프로그램(K-Move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취업 준비가 막막하거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타센터 241호 진로취업지원실로 방문해 주세요.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Q3. 우리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예방 교육이나 대응 계획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3. 이번 사안과 관련된 뉴스를 보며 저희도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아직은 많지 않은 편이라 큰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시 취업률 결과를 확인하니, 2023년에는 12명, 2022년에는 6명 정도로 해외 취업 인원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대부분 학과와 연계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나 교수님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된 기업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취업 사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최근에는 '대학생 해외 취업 피해 예방 안내' 포스터와 유의 사항 자료를 제작해 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 채용정보 상단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학 공식 SNS 채널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어 진로취업지원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는 해외 취업 시 유의 사항과 피해 예방 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취업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돋는 게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고수익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월드잡플러스에서는 해외 취업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로 ▲정식 취업비자 꼭 받기 ▲과한 조건은 의심하기 ▲화상 인터뷰로 회사 실존 확인 ▲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받을 것을 강조했다. 확실한 정보와 신중한 선택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오수현 기자(dhtngus0227@jj.ac.kr)

전주대 축구부, 제106회 전국체전 정상에 서다!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부산 동명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대학부 결승전에서 용인대학교를 2:1로 꺾고 전국체육대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이다.

전주대학교 축구부 주장 양현진은 “전주대에 입학한 이후 매년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달려왔다”라며 “졸업을 앞두고 그 목표를 이뤄 매우 좋다. 특히 우리팀이 ‘전국체전 첫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 더욱 값진 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결승전 종료 직후를 꼽았다. “다리 통증 때문에 끝까지 뛰지 못해 아쉬웠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벤치에 있던 선수들과 함께 물을 뿌리며 뛰어들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이후 일정에 대해 “아직 왕중왕전이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대회이기 때문에 꼭 우승해 ‘삼관왕’이라는 역사를 쓰고 전주대에서의 마지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왕중왕전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왕중왕전은 리그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겨루는 결선 경기로, 우리 대학 축구부의 중요한 무대였다.

전주대학교 축구부 정진혁 감독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전주대 축구부가 창단 이래 전국체전에 출전해 준우승 7회, 동메달 4회라는 성적을 거뒀지만, 금메달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이번에 학교 구성원들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돼 너무 기쁘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첫 경기인 상지대학교전을 꼽았다. “대진표가 확정된 순간부터 매 경기가 결승전이라는 각오로 준비했다”라며, 왕중왕전을 앞둔 각오에 대해서는 “왕중왕전에서는 우승도, 준우승도, 3위도 경험했지만, 올해는 권역리그 준우승으로 본선에 진출한 만큼 그 아쉬움을 꼭 우승으로 갚고 싶다”고 전했다.

전주대 축구부는 전주대 사상 첫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남은 왕중왕전에서도 삼관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기사 | 김소리 기자(sorikong02@jj.ac.kr)
디자인 | 오수현 기자(dhtngus0227@jj.ac.kr)



‘전주페스타 2025’는 가을 전주를 대표하는 대규모 통합 문화축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올해 축제는 음식, 예술, 과학, 미디어 등 다양한 테마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주비빔밥축제와 통합 개최되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해졌다.

이번 축제는 전주비빔밥축제, 전주독서대전, 국제한지산업대전, 전주예술난장, 전주막걸리축제 등 전통과 현대,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를 한데 모았다. 축제 기간에는 훌로그램 쇼와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불꽃놀이, 대형 포토존 등 관람객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됐다. 또 민간기업 협업 팝업스토어, 각별 어린이 과학 놀이터, 스마트팜 체험, VR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음악 공연 라인업도 주목받았다. 3일간 노을, 스컬&하하, 비오, 임창정 등 인기 가수가 펼치는 K팝,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낮에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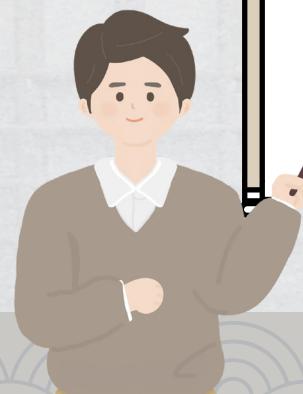
린이 과학 체험과 전통 놀이가, 밤에는 공연이 펼쳐져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올해는 각 축제가 분산 개최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즌 안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커뮤니티가 어우러져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비빔밥 퍼포먼스, 세프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 지역 농산물 시식 등 풍성한 먹거리 체험 부스도 운영돼 전주 특유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축제는 SNS 해시태그 이벤트와 스템프 투어, 무료 입장 정책 등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주페스타 2025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전주의 계절·문화·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형 문화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올해의 성공과 부족함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축제로 돌아올 예정이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좋은 선생님과 횡설수설



김형술(사범대학 한문교육과 부교수)

말은 언중(言衆)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그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보이는 어휘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본래의 뜻이 달라진 말 가운데 하나인 ‘횡설수설(橫說豎說)’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橫(횡)’은 ‘나무 빗장’을 뜻하는 ‘목(木)’과 발음을 표시하는 ‘黃(황→횡)’이 결합된 글자로 본뜻은 ‘빗장’이고, 빗장은 가로지르게 마련이므로 ‘가로’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이나 강 땃위를 가로지름’이라는 뜻인 ‘횡단(橫斷)’이 대표적인 예시라 하겠습니다. ‘가로지르다’라는 뜻이 ‘멋대로 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되어 ‘전횡(專橫)’이라는 단어에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횡설수설’에서는 ‘가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자 ‘說’은 ‘말’을 뜻하는 ‘언(言)’과 ‘기쁘다’를 본뜻으로 하는 ‘태(兌)’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태(兌)’를 분석해 보면, 아래 ‘儿’은 ‘사람의 다리’를 뜻하고, 가운데 ‘口’는 사람의 ‘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입 위의 ‘八’은 ‘입가 주름’을 표시한 것입니다. 입가 주름을 강조하여 표시한 것은 왜일까요? 네, 바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兌)’가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說=言+兌’로 돌아가 보면 이 글자에서 ‘기쁘게 말하다’ 또는 ‘입가 주름이 파일 정도로 말하다’는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 공통된 ‘말하다’는 ‘說’의 첫 번째 뜻입니다. 이때 발음은 ‘설’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말하다’에서 ‘기쁘다’는 뜻이 강조되어 ‘說’은 ‘기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설’이 아니라 ‘열’이라고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說’은 ‘입가 주름이 파일 정도의 특별한 말하기’인 ‘유세(遊說)’라는

뜻도 가집니다. 이때는 ‘세’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 글자 ‘豎(수)’는 ‘굳다, 굳세다’라는 뜻인 ‘(긴)’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립(立)’이 결합한 글자로 ‘세우다, 서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에서 ‘세로’라는 뜻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횡설수설(橫說豎說)’은 ‘조리가 없이 이것저것 되는대로 지껄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횡설수설(橫說豎說)’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횡설수설(橫說豎說)’은 ‘가로로도 말하고 세로로도 말하다’라는 데서 ‘다방면으로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려 말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께서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선생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달가(達可; 정몽주의 자(字))의 논리는 횡설수설해도 [횡으로 말해도 종으로 말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達可論理, 橫說豎說, 無非當理]”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횡설수설’은 성리학의 이치를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 다양한 관점으로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설명한다고 했지만 결국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는 데 실패하게 되면 그의 ‘횡설수설’은 조리 없이 중언부언하는 말이 되고 말겠지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횡설수설’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뜻만 남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횡설수설의 긍정적인 뜻을 다시 새기면서, 모름지기 좋은 선생이 되려면 횡설수설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전통의 전주

전통의 도시 전주 여행 장소 추천

한국 전통의 멋과 현대의 활력이 공존하는 도시, 전주는 사계절 내내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경기전, 자만벽화마을, 남부시장, 오목대, 완산공원 등 다양한 명소가 자리하고 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공간을 따라 걸으면 전주를 빠짐없이 즐길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은 700여 채가 넘는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한복 체험, 전통음식 시식, 예절 교육 등 체험할 거리가 풍성하고, 골목 곳곳에는 전통공예품 상점과 개성 있는 카페들이 자리한다. 한옥 마을 안에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안된 경기전, 국내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인 전동성당, 그리고 전주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최명희문학관 등 볼거리도 많다.

경기전과 오목대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유서 깊은 장소로, 아름다운 한옥 양식과 고즈넉한 정원이 인상적이다. 경기전에서 멀지 않은 오목대는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로,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뜻을 다졌다라는 일화가 전해진다. 특히 해질녘 오목대에서 내려다보는 한옥마을의 풍경은 전주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꼽힌다.

자만벽화마을

한옥마을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자만 벽화마을은 골목 곳곳을 벽화와 예술 작품으로 꾸민 마을이다. 벽마다 그림과 조형물이 이어져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으며,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만화와 다양한 작가들의 벽화 작품 때문에 젊은 여행

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남부시장 & 야시장

전주 남부시장은 낮동안의 전통시장이 밤에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다양한 먹거리와 청년 창업 상점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전통시장 특유의 활기와 젊은 감성이 더해져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야시장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길거리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완산공원과 덕진공원

완산공원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등산로와 휴식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산책이 인상적이다. 덕진공원은 연못과 전통 정자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 대표 수변공원으로, 현지인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다.

다채로운 문화

이 외에도 한벽굴, 전주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각종 전통문화체험관과 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미와 활기찬 시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계절별로 특색 있는 풍경과 다양한 축제, 풍성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전주비빔밥축제, 젊은 세대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돼

전주시 대표 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주 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약 1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 다수는 가족이나 연인이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하계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올림픽 종목을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존’도 운영됐다. 21개 자생 단체와 음식점이 참여한 ‘레트로 비빔밥 거리’에는 연일 긴 대기 줄이 이어졌다. 또 비빔밥 재료를 캐릭터로 형상화한 ‘비빔프렌즈 팝업스토어’, ‘비빔 문화공간’,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존’, ‘세계비빔촌’ 등 특별관이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야간에는 버스킹, 가수 공연, 마당극,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최근 지역 축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공연·체험 부스와 특색 있는 먹거리가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과거 ‘동네 어르신 잔치’로 불리던 축제가 이제는 참여형 콘텐츠와 이색 데이트 코스로 변화하고 있다. 여론분석업체 썬트랜드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역축제’ 언급량은 전월 대비

17.11% 증가했다.

전주비빔밥축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이번 축제는 가족·중장년 중심이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바이럴형 축제로 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비빔프렌즈 굿즈, 포토부스, 체험형 마피아 게임 등 감각적인 이벤트를 기획해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앞으로도 전주시는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 '사.자.성.어' 시즌 6, 사랑 전하러 330km 달리다.>

전주대학교는 '사자성어'(사랑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 간다) 시즌6을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자성어를 진행하는 전주대 이진호 교수(선교지원실 특임교수)팀은 이번에도 학생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전주에서 출발해 남원(1명), 합천(1명), 장성(1명), 영광(1명), 용인(1명), 남양주(1명), 인천(1명)을 최종목적지로 10월 20일~24일까지 4박 5일 동안 총 330km를 이동하며, 학생 7명의 부모님을 만나 뵈었다.

이진호 교수는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26명이나 길러내신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 감동과 사랑을 전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자녀의 편지와 영상을 보시고 눈물을 훔치시던 부모님의 모습에 감동하였다고 전했다.

선교봉사처는 "사자.성.어. 프로젝트가 감동과 행복, 복을 전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선교지원실 이유민 행정원



가을은 편지를 보내는 계절

가을은 편지 보내기 좋은 계절이다
봄의 탄생과 여름의 성장통으로 써 내려간
푸르른 편지를 낙차 큰 일교차와 건조한 햇빛으로 숙성시킨
아름다운 이별의 계절이기에
편지를 물들인 빨강 자주 주황 노랑 물감들이
차디찬 겨울의 냉기에 얼어붙지 않도록
사방의 시선들을 향해 배달해야 할 때다
계절의 시간표에는 관용이 없다
목숨줄처럼 붙잡았던 인연의 틈새가 벌어질 때면
시원한 마음으로 흔쾌히 놓아줘야 한다
발이 없어 보내지 못한 사정을 아는 듯, 때마침
계절의 미당발 바람이 우편배달부를 자정한다

여름의 덥거나 습습한 바람이라면
편지에 얼룩이나 번짐이 생길 수 있지만
여름을 뒤로한 갈바람은 상쾌하여
편지에서 추억의 향기를 묻혀낸다
온몸 가득 주렁주렁 매달아 둔 편지를
고개 숙인 채 되돌린 발걸음에게도 날려보낸다
시원할 때는 섭섭하지 않은 때이기에
아쉬움도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간다
가을은 보낼 편지도 많고 받는 사람도 많아
마음의 색소들이 짙어지는 계절이다

이영철(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메랑>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뿌린 것은 반드시 자라나고, 심판은 종종 우리를 만든 무기로 온다. 악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원을 그리며 날아가는 부메랑이다. 우리는 타인을 향해 던지지만, 도덕적 우주의 중력은 그것을 다시 우리의 손으로, 아니 우리의 가슴으로 돌려 보낸다.

다윗은 박세바의 남편을 칼로 제거했지만,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었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撒母 12:10). 그가 사용한 무기가 그의 가문을 괴롭히는 저주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신학적 현실이다. 악은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먼저 부패시킨다. 우리가 파는 구덩이에 우리가 먼저 빠지는 것이다(시 7:15). 옮기는 타인을 위해 놓여지지만, 우리 자신의 발을 붙잡는다.

바벨론은 열방을 억압했지만, 그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렸다. 로마는 십자가를 처형의 도구로 만들었지만, 그 십자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혁명의 상징이 되었다. 억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결국 삼켜진다. 폭력을 더 큰 폭력을 낳고,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려 거짓말쟁이 자신을 고립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심판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

라, 내부에서 숙성된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고, 우리가 만든 독이 우리를 중독시키며, 우리가 던진 돌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그러나 복음은 이 순환을 깨뜨린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메랑을 받으셨다. 우리가 던진 모든 저주, 우리가 심은 모든 악의 씨앗, 우리가 만든 모든 파멸의 도구,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향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자유를 풀어주며, 긍휼은 긍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던지는 것이 여전히 돌아오지만, 이제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순환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위협인 동시에 약속이다.


교수칼럼


허명준 조교수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과학적 이유

전주대학교 캠퍼스의 가을은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은행잎은 바람에 흘날리며,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러나 가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 채 우리는 늘 바쁘다.

학생들은 과제와 시험, 친구 관계, 성적 대한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교수님들 역시 강의와 연구, 행정에 쫓겨 숨고를 틈이 없다.

나 역시 쪼개진 시간을 빙틈없이 채우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지워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시간 관리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고, 몸보다 머리가,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가고 있다.

신경과학자 대니얼 J 레비틴은 〈정리하는 뇌(The Organized Mind)〉에서 현대인의 뇌는 쉬지 못하는 기계처럼,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질서를 잃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쉬는 시간조차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잠시 앉아 숨을 돌리는 동안에도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며 짧은 영상과 글을 넘긴다.

그러나 그 짧은 자극조차 뇌에는 또 다른 입력이 되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다. 우리가 쉰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드는 셈이다.

우리가 하루 종일 긴장과 자극 속에 살 때, 몸은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동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 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반응은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기전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몸과 뇌가 모두 지칠 수밖에 없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마음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몸은 일단 비상 모드를 멈추고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이때부터 부교감신경이 활성

화되면서 심박수가 낮아지며, 혈압이 안정된다. 호흡은 깊고 느려지고, 뇌파는 알파파로 바뀐다. 혈액은 소화기관과 말초로 다시 퍼지고, 세포는 노폐물을 정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시작한다. 이때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피부 온도도 조금씩 오르며, 몸 전체가 '정돈'의 리듬으로 들어선다.

신경과학에서는 이 지점의 뇌의 상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라고 명명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낮 동안 쌓인 기억과 감정을 다시 배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멍하니 있는 동안 뇌는 자신을 청소하고,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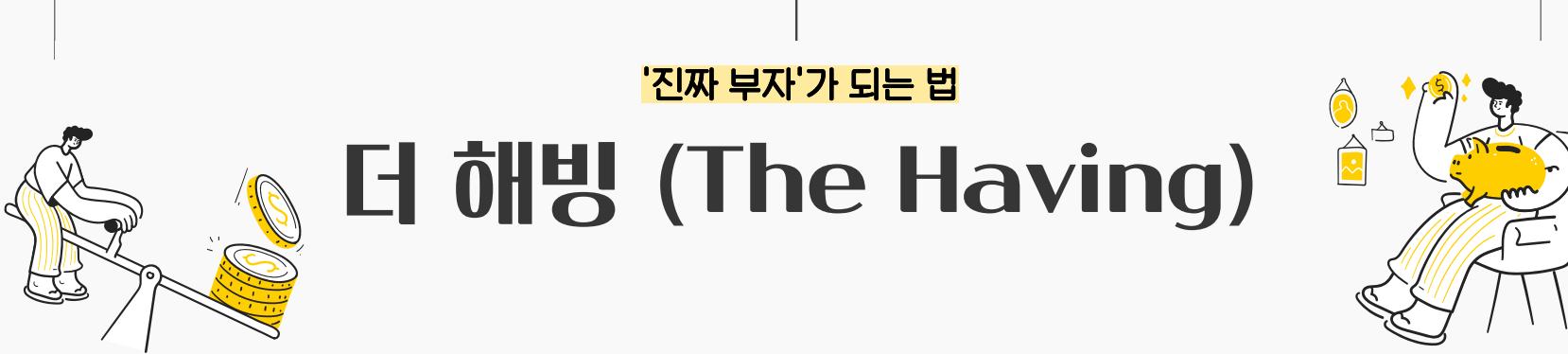
이런 이유로 가만히 있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느끼지 못할 뿐, 몸과 뇌는 그 시간에 가장 열심히 회복 중인 것이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다. 집안일, 친구 관계, 시험과 성적 걱정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이어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전주대학교의 캠퍼스를 천천히 걸어보자. 의식하지 않아도 살랑거리는 바람, 그날의 온도, 낙엽밟히는 소리가 오감으로 느껴질 때, 뇌는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잘 쉰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깨어 있는 동안,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다.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내 몸에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틈을 주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몸과 뇌는 조용히 다시 시작할 에너지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진짜 부자'가 되는 법 더 해빙 (The Having)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다는 '행운의 여신' 이서윤.

세계 각지의 부자들이 조언을 구하는 '행운의 멘토'로 불리는 그녀는,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 이서윤은 흥주연은 어떻게 이서윤을 만난 걸까? 당시 이서윤은 자신을 찾는 수많은 부자를 뒤로한 채 자취를 감추고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내민 사람은 특별한 재벌이 아닌, 평범한 여성 흥주연이었다.

흥주연은 부자들의 구루로 불리는 이서윤을 직접 만나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졌고, 그 대화를 통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인 '해빙(Having)'을 배워나갔다. 그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더 해빙』(The Having)이다.

이 책에서 부와 행운은 동경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불교 승려 이자 명상가인 티낫한은 "과거에 살면 우울하고, 미래를 살면 불안하다. 오직 현재에 머무를 때 평온하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미래나 과거를 바라보느라 당장의 순간을 놓친다. 『더 해빙』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지금'으로 돌린다. 그녀가 말하는 해빙의 시작점도 바로 '이 순간'이다. 그것은 '언젠가 행복해질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태도다.

또한 『더 해빙』은 불안을 없애기보다, 그것을 다루는 법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간절히 원할수록 '없음'에 집중하게 되고, 그럴수록 없음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책은 말한다.

이서윤은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산다"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부의 본질은 재산의 크기를 떠나 '이 순간을 누릴 줄 아는 자세'에 있다. "Having은 단돈 1달라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그녀의 설명은, 우리 일상에도 쉽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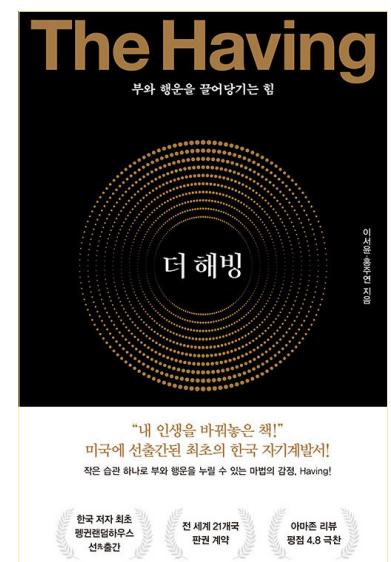
할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오늘의 풍경에 잠겨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해빙은 그렇게 시작된다. 내적 풍요에서 오는 잠시의 설렘에 하루 온도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우리의 내일을 달라지게 한다. 결국 해빙은 부를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기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서윤은 무조건 아끼는 태도는 해빙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낭비나 과소비와 해빙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녀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해빙 신호등'을 제시한다. 소비할 때의 감정을 기준으로 긴장과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빨간불, 자연스러운 감정이 든다면 초록불이다. 즉, 편안함이 느껴지는 소비야말로 진짜 해빙이다.

또 다른 해빙의 도구는 '해빙 노트'다. 저자는 해빙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방법으로 '해빙 노트'를 제안한다. '있는 것'을 기록하며 감정의 흐름을 훈련하는 방식이다. 해빙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충만한 감정이 느껴질 때는 그 감정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을 시각화하고, 감사와 여유를 몸에 익힐 수 있다. 오늘의 감사와 편안함을 기록하며 '있음'의 감각을 확장하는 것이다.

물론 '해빙'을 실천한다고 해서 모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생각의 관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간다. 결국 부와 행운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충만함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기사 | 조민영 기자(202315013@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ye_yejin@jj.ac.kr)



제목: 더 해빙
저자: 이서윤, 홍수연
출판사: 수오서재
출판연도: 2020

기자칼럼

조민영 기자
(202315013@jj.ac.kr)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으로 본 청년 노동의 현실

최근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의 사망 사건은, 청년 노동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피해자 정모 씨는 1년 2개월 동안 수원·잠실·도산점 등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며 4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종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비특례업종임에도, 유가족은 고인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사내 근로자의 평균 근로 시간이 주 44시간대였다고 반박했다. 진실은 조사 중이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제도 속 문장에 머물러 있고, 현실의 일터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직후 회사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유가족의 과로사 주장을 부인했다.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유족에게 "양심껏 모범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임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드렸다"라고 시인하며, 근로 기록 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지문인식기 오류를 들었다. 또한 "사고 직전 일주일 근로 시간이 평소 대비 높았다"라고 덧붙이며, 업무 강도의 심각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3년간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승인된 산업재해는 63건으로, 승인율은 100%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업계 1위인 SPC삼립보다 더 많은 산재가 승인됐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가 반복됐음을 보여준다. 법은 존재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문제의 근원은 제도의 허점과 관리의 부재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직후 인천점과 본사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점에

대한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비정상적 운영 문화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 휴가·휴일 부여, 임금 체납 등도 함께 점검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청년 노동이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는 구조를 드러냈다. 그러나 제도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일터에서 작동하게 하는 사회의 의지다.

고인은 창업을 꿈꿨지만, 그 꿈은 과로 속에 멎췄다. 노동법은 있었지만, 현장은 달랐다. 노동자의 권리가 법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지켜질 때 비로소 법이 완성된다.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같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을'의 입장에서는 요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도는 더 단단해져야 하고, 감시는 더 촘촘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의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과 윤리적 판단이 있었다면, 애초에 법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제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다.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야 하기에 법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인식 위에서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한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노동의 현장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자칼럼

김소리 기자
(sorikong02@jj.ac.kr)

황새의 죽음, 진짜 동물 보호는 무엇인가

최근 김해시가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방사한 황새 3마리 중 1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생태 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결과는 생명을 잃게 한 '보여 주기식 행사'로 남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는 정말 동물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보여주기용 행사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일까.

멸종위기 1급인 황새를 방사하는 행사는 사진과 영상은 걸보기엔 멋져 보였지만, 한 마리가 폐사했다. 케이지는 좁았고, 방사 전 준비와 사후 관리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행사는 생태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정작 복원의 기본인 과학적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이 부족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마리의 새가 폐사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동물 보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활동이 정말 동물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동물 보호'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것으로 보호의 역할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멸종위기종을 다루는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사 이후 해당 개체가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리 체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생태 복원 사업이라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하게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원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결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가 지역 환경 단체와 연계해 서식지 관리, 생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단순한 방사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복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동물 보호는 정부나 단체의 책임만이 아니다. 시민들 또한 단순히 불쌍하다는 단편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동물 복지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구조 활동 참여, 동물의 서식지 보전, 윤리적 소비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곧 생명을 대하는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인간의 편의와 감동을 위해 동물을 소비하는 시선을 거두고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황새의 죽음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태를 회복하고, 어떤 마음으로 생명을 대할지를 묻는 질문이다. 보호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행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에 있다.

상시 모집중!

전주대학교 미디어센터

대학신문사 모집 요강

주요 활동

신문 발간, 교내 뉴스 제작

활동 사항

취재부: 교내 행사 취재 및 인터뷰 진행,
기사 작성 등
편집부: 기사 참고 자료 제작 및
사진 보정, 종합본 PDF 제작

활동 혜택

- 정기자 선발 시 매 월 교내 미디어 장학금 지급
- 신문 발간시 신문 기사 작성에 대한 원고료 지급
- 학기별 CP포인트 지급
- 각종 미디어 프로그램 강의권 제공

오는 곳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20호

문의

063-220-2442



신청 바로가기

College of Business at Jeonju University Leads Financial Talent Development Through Busan Financial District

Jeonju University (President Ryu Doo-hyun) announced that its College of Business conducted an on-site learning program at the Busan Financial District from October 31 to November 1. Around 50 students participated, including members of the university's financial institution program, beSTAR.

The program was organized as part of Jeonbuk's initiative to establish itself as a regional financial hub, aiming to deepen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strengthen their career exploration skills.

During the visit, students toured the Korea Exchange (KRX) Exhibition Hall, where they gained firsthand insights into the operations of the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and the broader capital market system. They also attended a special lecture by KRX Academy Deputy Director Won-il Lee, who spoke about financial market trends, investment strategies, and asset management practices. At the Securities Museum, students explor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Korea's capital markets through interactive exhibits, further broaden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s evolution and career opportunities within it.

One participant shared, "Experiencing the financial industry firsthand made my previously vague career goals in finance much clearer. Listening to industry experts helped me understand which competencies I need to develop for the future."

Dean Hyojin Kim of the College of Business stated,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lated industries to enhance students' practical skills and career competitiveness in the financial sector."

Building on this field trip, Jeonju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plans to expand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and collaborative programs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finance and management fields.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de Accelerates Global Talent Development Through Industry Field Visit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Ryu Doo-hyun) announced that about 40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de conducted field visits to major logistics and trade facilities in Uiwang, Gyeonggi Province—including Uiwang ICD, Anyang Customs, and the Hanjin Bonded Warehouse—from October 31 to November 1.

The program, part of the department's initiative to cultivate global logistics and trade professionals, aim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while supporting their career exploration and practical learning.

During the visits, students engaged in on-site learning at Uiwang ICD, Anyang Customs, and Hanjin Bonded Warehouse, gaining firsthand insight into the dynamic logistics and trade operations that underpin the national economy. The experience helped them connect theoretical knowledge from the classroom with real-world industrial practices and operational systems.

Professor Jung-ho Yang, Chair of the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de, who led the program, stated, "Through this field trip, I hope students were able to establish a clear vision for their careers in logistics and trade, take pride in contributing to the nation's economic foundation, and grow into leaders who will drive the global logistics and trade industry forward."

Building on this experience, the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de plans to strengthen its efforts further to foster professional talent in the logistics and trade sectors and expand educational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industries and communitie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Holds 3rd Academic Symposium on "Flow and Self-Transcendence"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uccessfully held its 3rd Academic Symposium under the theme "Flow: 無我之境 (Self-Transcendence)" on Friday, October 31, at the Onnuri Hall of the Star Center. Hosted by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nd sponsored by KOTRAS Co., Ltd. and Daechang Medical Co., Ltd., the event aimed to rediscover the essence of occupational therapy through the concept of flow and to promote academic exchange and reflection on human growth.

The morning session began with student-led "Flow Performances," including sign language presentations, card displays, and musical performances, followed by a keynote lecture by Professor Hwan Kim of Daegu University titled "The Best Happiness: Flow." Introducing Mihaly Csikszentmihalyi's flow theory, Professor Kim defined flow as "a psychological state in which one becomes deeply immersed in an activity, deriving joy from the process itself rather than from external rewards or outcomes." He emphasized that "flow is closely linked to self-esteem, happiness, and productivity, and is a core concept for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occupational therapy."

After the lecture, students gathered in small groups to discuss the question, "What activities do I immerse myself in?" During lunch, the venue's lobby showcased the thesis posters of fourth-year students and the capstone design projects of third-year students, highlighting their creative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afternoon, occupational therapist and workshop director Yoonho Jang delivered a lecture titled "From Flow to Presence in Occupation: Discovering Myself and Extending to the Client." Jang emphasized that "occupational therapists are not merely functional trainers, but companions who help clients rediscover their sense of being." Presenting real clinical cases through videos, he illustrated how patients regained self-esteem through immersive engagement in meaningful occupations, concluding that "flow is the moment you forget yourself, while occupational presence is the moment you meet yourself."

During the "Flow Part" session, students engaged in group discussions and creative activities centered on the theme of flow. Each team created visual and written expressions on large boards and presented photos and videos capturing the concept. The top three teams, selected through peer voting, presented their works to the audience.

The symposium concluded with the "Flow Part 3 Event," featuring an award ceremony and an open discussion among students and faculty, further enriching the academic atmosphere.

Professor Inkyu Yoo, Chair of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remarked, "Flow

Jeonju University's HUSS Project Team Signs MOU with Wrtn Technologies to Promote AI Literacy

Jeonju University (President Ryu Doo-hyun) announced that i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Team (HUSS Project Team)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Wrtn Technologies (CEO Lee Se-young) on October 30 to promote AI literacy and nurture future talent.

Founded in 2021, Wrtn Technologies is a leading Korean generative AI startup that operates Wrtn AI, one of the most popular AI platform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The signing ceremony took place at Jeonju University's Jinri Hall, attended by Lee Yong-uk, Director of the HUSS Project Team, executives from Wrtn Technologies, and other representatives from both institution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the two parties agreed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contribute to the wider dissemination of AI education.

Under the agreement, the two institutions will collaborate in several key areas, including:

- ▲ Joint development of regionally connected AI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 ▲ Implementation of AI-based regional value creation projects
- ▲ Operation of AI project-based practicums and creative idea competitions for students.

Lee Yong-uk, Director of the HUSS Project Team, stated, "This agreement mark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enhancing students' practical competencies through AI educ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nationwide spread of AI literacy. We will continue to build active, practice-oriented curricula that foster convergence-driven talent."

Jeonju University has long been dedicated to cultivating interdisciplinary professionals in partnership with local communities. Through this collaboration, the university aims to expand access to AI education and further strengthen hands-on, future-oriented learning opportunities.

全州大学举办留学生短视频大赛颁奖典礼



全州大学（校长职务代理 权秀泰）于21日在校内国际教育馆举行了“外国留学生大学生活短视频（Short-form）内容征集大赛”颁奖典礼。

此次大赛作为RISE项目的一部分，旨在通过网络视频展示外国留学生在当地社区的日常与文化。参赛学生以在韩国的学习与生活为主题，用短视频记录留学经历，让学校与社区能够更好地倾听留学生的声音，增进理解与共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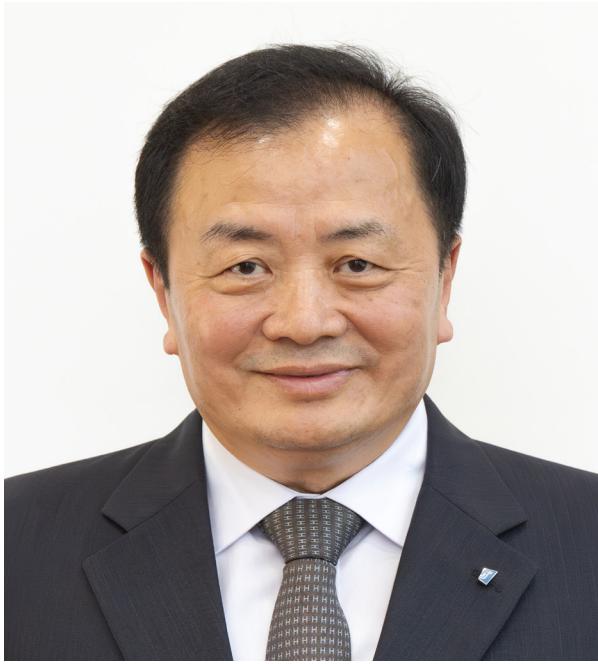
本次比赛共有60余名外国留学生参加，竞争十分激烈。经过评审，来自缅甸的勒梦（Lé Mun，音译）同学荣获大奖；金奖由缅甸的帕洋生梦扎（Pa Yamseng Munza，音译）获得；银奖由越南的陈泰山（Tran Thai Son，音译）与凯茵玉（Khaing Yu Yi，音译）共同获得；鼓励奖由苏阳（Su Yang，音译）等包括中国留学生在内的11名学生获得。

颁奖典礼由全州大学国际交流院主办，现场播放了获奖作品视频。留学生们真挚的故事引发了观众深深的共鸣与感动。获得大奖的缅甸籍学生勒梦（Lé Mun，音译）（经营学系）表示：“我希望通过这部视频，让更多人了解外国留学生在韩国如何学习与生活。制作过程让我得以回顾自己的校园生活，是一次非常有意义的经历。”他还补充道：“感谢学校为我们提供这样宝贵的平台，让留学生之间能够互相理解与共鸣。”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英国表示：“通过年轻一代熟悉的SNS短视频形式，我们能够生动展现留在韩国生活的真实面貌。未来，我们将继续通过征集活动与体验项目，与社区共同分享留学生积极、快乐的大学生活。”他进一步指出：“为了强化外国留学生的综合能力，我们将推出更多多元化项目，并通过与地方社会的合作，完善留学生支持与管理体系。同时，我们还将积极利用此次大赛的优秀作品，吸引更多海外留学生，让世界看到我们地区是一个适合留学的友好城市。”

获奖作品视频将通过SNS及大学官网公开，让更多人一同欣赏并分享留学生的故事。

全州大学任命刘斗贤为第17任校长



学校法人新东亚学院（理事长车钟顺）于10月24日（星期五）召开理事会，决定任命前全州大学对外副校长刘斗贤（音译，류두현）为全州大学第17任校长。

理事会表示，刘斗贤新任校长是一位兼具教育、研究与产业现场经验的实用型领导者，是能够强化大学办学理念、引领未来创新的合适人选。

刘校长毕业于汉阳大学工业化学专业，取得首尔大学化学工程硕士学位，并在美国科罗拉多州立大学获得化学工程博士学位。1991年起担任全州大学环境生命科学系教授，历任对外副校长、研究生院院长、宣教奉仕处处长、教务处处长等学校主要职

务，在教育、研究与行政领域积累了广泛经验。特别是在推进以实用学科为中心的大学发展战略方面发挥了主导作用，为全州大学的成长奠定了坚实基础。他于2023年8月底荣退，此前担任全州大学国际英才学院院长。新任校长任期自11月1日起，为期四年。

刘斗贤校长表示：“全州大学是建立在基督教建校理念之上的大学，应通过信仰与学问的和谐教育，实践真理与爱。”他还表示，“将全州大学打造为连接地区与世界的创新枢纽，以学生为本，推动全球协同研究与数字化行政创新，构建面向未来的大学体系。”此外，刘校长强调：“AI与数字创新、产学研合作及全球网络扩展将成为促进每一位学生成长的重要动力。”他补充说：“大学的竞争力源于教育的真诚，我将致力于建设一个与地方社会和世界共同发展的开放校园，培养以基督教价值为基础、具备伦理领导力的人才。”

프랑스, 연금개혁 2년 만에 중단…대선 이후로 재연기

프랑스 하원이 마크롱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연금개혁을 시행 2년 만에 중단하고, 재개 시점을 2027년 대선 이후인 2028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중단안은 찬성 255표, 반대 146표로 가결됐다. 2023년 도입된 연금개혁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전액 수령을 위한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야당 반대에도 헌법상 특별 조항을 사용해 개혁을 강행했지만, 이후 여론·야당·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개혁 반대 여론은 70% 안팎을 유지했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며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

정치적으로도 마크롱 정부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권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과반을 잃은 정부는 연정 구성에 실패하며 총리가 다섯 차례나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고, 르코르누 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연금개혁을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표결에서는 사회당·녹색당·극우 RN 등이 찬성했고 여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좌파는 이를 “마크롱 정권 상징의 혼들림”으로 평가했고, 우파 공화당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희생한 항복”이라 비판했다.

연금개혁 중단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1686억 유로로 GDP 대비 5.8%에 달하며, 신용평가사들은 프랑스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2년간 이어진 갈등의 분기점이지만, 정치권 분열과 재정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의 한국 핵잠 승인, K-조선 도약과 동북아 전략지형 재편의 핵심 수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K-조선이 핵잠 시대에 진입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상당 부분 자체 개발할 수 있으며 한화오션은 이미 핵잠 운영 시뮬레이션까지 시험했다. HD한국조선해양도 미국 SMR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 조선업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특히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조계잠수함 사업 등 대형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역외 균형 전략’이 있다. 미국은 중국 경제를 위해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키우되 통제 가능한 파트너를 택해야 했고, 평화헌법·비핵3원칙·핵잠재력 등 정치적 위협이 큰 일본보다 통제 장치가 확실한 한국을 선택했다. 한국의 핵잠은 서해에서 중국 북해함대를 끌어들여 전략적 족쇄 역할을 하며, 동시에 일본에게는 ‘코리아 쇼크’를 주어 재무장을 가속하는 효과도 날고 있다. 미국은 이 경쟁 구도를 활용해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더라도 AUKUS-MASGA 방식으로 미국의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핵잠 도입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협이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될 수 있고, 동북아 군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핵잠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주권적 권리이자 필수 대응 전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